Personal Statement

13세살적 아버지께서 어린이 SF 소설을 선물해주셨는데, 그 제목은 Tom Turbo였습니다. 카를로, 클라라가 발명한 인공지능 로봇 톰터보는 117가지나 되는 재주를 이용하여 발명자인 친구들과 함께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톰터보의 지능과 재능에 감탄하면서, 언젠가는 저도 저만의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톰터보를 좋아하게 된 것은 책 속 부록도 한 몫 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용한 입체안경이라든지, 온도에 따라 숨겨진 보물 위치가 보이는 보물지도라든지, 특이한 장치들을 보며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톰터보 같은 컴퓨터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컴퓨터공학과로 진학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톰터보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로봇 클럽에 가입하여 HW를 공부하였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접하면서, 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로봇축구 대회에 참여하여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아트 클럽에 가입한 것은 또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이 취미는 저에게 총무로써 리더십을 길러주고, 저의 미적 감각과 끈기를 길러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주어진 요구사항을 수행하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기능 위주의 사고와는 달리, 미술은 스스로가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완성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전체적이고 감각적인 시야를 기를 수 있었고, 제가 하는 일에서 스스로가 정한 ‘완성된 그림’을 좇게 되었습니다. ‘State of art’라는 말이 저에게는 ‘예술의 경지’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로 다가오고, 제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시기, 외할머니께서 중풍을 앓으시는 것을 보고 HCI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려워지셨고, 당시 잠수종과 나비라는 소설의 작가가 눈으로 Typing하는 기계로 이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컴퓨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써의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석사과정 때 HCI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때는 보다 즐길 수 있고 효율적인 인터랙션을 디자인 하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HCI 연구에 필수적인 논리적 분석방법과 사용자 리서치, 설문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석사 논문은 키보드에 적외선 센서를 심어 키보드 상에서 제스처를 입력, 몇 가지 단축키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에 해당 논문을 썼는데, 유사한 연구가 2014년에 MS Research에서 수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졸업 후 삼성전자 UX Center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행운 중 하나였습니다. IDEO와 함께한 의료기기 TF에서는 학생 때는 경험해볼 수 없었던 의료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pain point를 찾고 brainstorming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홈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사용자 생활 패턴을 보고, 각각의 니즈를 들어보는 것, 그리고 그 중에 공통적인 니즈를 찾아내는 작업이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의 엔지니어 등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이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한 결과 부서 내에서 ‘이달의 사원’ 상을 세 번 받았고, 특허도 X건 출원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배우는 것은 많았지만 유럽이나 북미 사용자를 주 사용자 타겟으로 하는 삼성에서 해외 사용자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고, 아이디어를 낼 때도 한국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중심 중 하나인 유럽에서 생활해보자 결심을 했고, 독일에서 약 1년간 생활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알게 된 한 독일 가정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웹사이트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만나 이야기하는 경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젊은 벤처 사업가도 만나고, 에이전시의 디자이너도 만나고, 베를린 공대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나답게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spectrum

저의 스펙트럼을 넓히려 노력해왔고, XX의 XXX 프로그램이 저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며, 스스로를 더 확고한 학자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At age twelve, my father gifted me a children’s science fiction Tom Turbo. I fell into the their adventurous story of intelligent bicycle Tom Turbo, and his inventor Karo and Klaro.